

독서 활동 노트

아다마, 테러를 향한 외침

* 아다마 바 지음 권가비 옮김



학생용

무엇이 담겨 있을까?	◆ 2
이렇게 읽었어요	◆ 3
인물 집중 탐구	◆ 4
나의 경험과 관련 짓기	◆ 6
주인공의 마음 읽기	◆ 8
응원의 편지 쓰기	◆ 10
세계는 지금	◆ 11



책을 읽기 전 표지를 살펴보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표지를 보고, 이 책의 내용을 짐작해 보세요.
2. ‘무슬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는 만큼 적어 보세요.
3. 9·11테러는 어떤 사건인가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조사해서 정리해 보세요.
 - ① 언제:
 - ② 어디서:
 - ③ 왜:

1.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옮겨 쓰세요.
2. 위 내용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4.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1. 아래 문장에 있는 빈칸을 채워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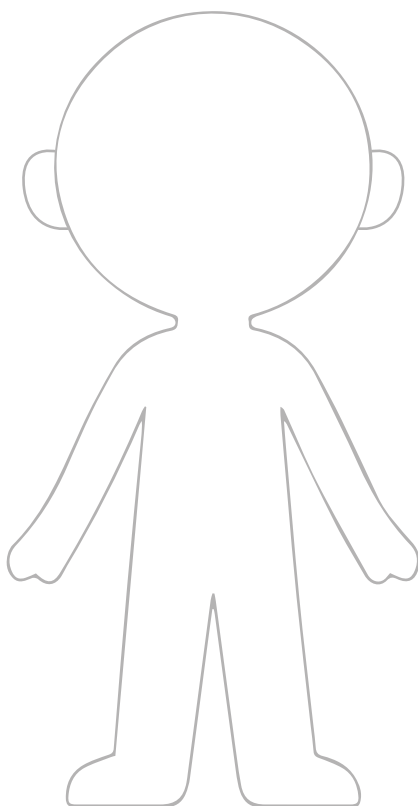
아다마는 아프리카 ()에서 태어났고, 두 살 때 가족과 함께
()에 이민을 왔어요. 아다마와 그의 가족은 ()교를 믿었지요.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일으킨 테러로 ()가 무너
졌어요. 아다마는 영문도 모른 채 ()에게 끌려가야 했지요.

2. 아다마는 왜 영문도 모른 채 소년원에 끌려가야 했나요?

3. 2006년, 아다마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4. 아다마는 비행 금지 명단에 이름이 올라 비행기를 탈 수 없었어요.
이에 아다마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1.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를 아래 그림 위에 표현해 봅시다. 생김새, 표정, 옷차림 등 무엇이든 자유롭게 그려 보세요.



2.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믿나요? 그 종교만이 입는 옷차림, 읽는 책,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나요?

다음 본문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그날 우리 여섯 명은 다른 승객들보다 더 많은 검사를 받았다. 공항 직원들은 우리 가방을 더 꼼꼼하게 살폈고, 그런 뒤에도 조사가 남았다고 따로 제쳐 두었다. 그들은 복장과 종교를 근거로 우리에게 수상하다는 낙인을 찍었다. 보안 요원과 승객들도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우리 일행이 비행기에 탑승하자 기장이 우리 쪽을 힐끔 보더니 머리를 절레절레했다. 그 모습을 보자 정말로 기분이 언짢았다.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리 지르며 욕하거나 앙다문 입술 사이로 말했다.

“너희 나라로 꺼져. 이 탈레반 놈들아! 빈라덴한테나 가라고!”

— 본문 26~27쪽

1. 아다마와 친구들은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았나요?

2. 그때 아다마의 감정이 어땠을지 모두 표시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서러운 / 슬픈 / 무관심한 / 긴장되는 / 찝찝한 / 걱정이 되는 / 불안한 / 주눅 든 /
안도한 / 혼란스러운 / 초조한 / 외로운 / 심심한 / 낙천적인 / 공허한 / 우울한 /
무감각한 / 억울한 / 부끄러운 / 화가 난

응원의 편지 쓰기

현재 아다마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고, 비영리 단체를 출범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아다마에게 응원의 편지를 써보세요.

아래 기사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대구의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입니다. 이 지역의 무슬림 유학생들은 지난 7년간 기도실로 쓰던 가정집을 허물고 사원을 건축하려고 구청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주민 반발이었습니다. 사원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 350여 명이 탄원서를 내자 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당시 일부 주민들의 격한 비난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주민 비상대책위 관계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되는데 주택가에서 어떻게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인터뷰 이슬람 신도 (유학생)

“주민들은 ‘절이나 교회도 여기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 동네만 해도 주거 지역에 교회가 많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역에서도 반이슬람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남아있는 모든 이슬람 사원과 기도실도 당장 폐쇄하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문화에 대한 이질감 때문에 배척하는 것은 갈등을 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이수정 /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전체 무슬림 공동체는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을 무조건 막는다고 보단 서로 우리 사회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 지 45년이 넘는 서울 이태원은 무슬림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인터뷰 정만석 / 서울중앙성원 인근 상점 주인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국적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를 뿐이지.”

인터뷰 칸 나비 / 서울중앙성원 인근 식당 주인

“여기서 우리 식당이 오늘로 25년 돼요. 여기 우리 손님들 80% 다 한국 사람이야. 너무 친해요, 사람들 다 같이 여기서.”

한국 이슬람 중앙회가 추산하는 국내 무슬림 인구는 18만여 명. 이제는 포용과 공존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 <[제보M] 이슬람 신도는 테러리스트?…사원 건축 갈등에 반대 국민청원까지>

MBN뉴스, 2021.9.22.

1. 위 기사에서 말하는 ‘문화에 대한 이질감’은 무슨 뜻인가요?

2.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3. 종교가 달라도 서로 포용하고 공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편집자의 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선 아이들

〈빛을 든 아이들〉 시리즈는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 극심한 역경을 맞닥뜨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지난 경험과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주인공들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비슷한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가요? 여러분의 삶 또는 이 사회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편집자들은 독자 여러분이 책에 담긴 한 사람 한 사람의 치열한 삶에 공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지은이 아다마 바

아프리카 기니에서 태어났고 두 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9·11테러 이후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낙인, 인권 유린을 겪은 아다마는 상처를 극복하고 부당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 책, 영화, 강연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널리 알렸다. 현재 아다마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비영리 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에 살고 있다.

옮긴이 권가비

고려대학교에서 지리교육과 영어영문학을 공부했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했다. 번역서로 《내 인생 최고의 책》 《용서의 나라》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소년의 불꽃》 《멈춰! 기후변화》, 〈익스플로러 아카데미〉 시리즈가 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을 든 아이들〉 시리즈

재난과 참사로 빅 트라우마를 경험한 청소년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이끌면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논픽션 시리즈입니다.



**아다마,
테러를 향한 외침**
무슬림 차별에 맞선
소녀 이야기

아다마 바 지움 | 권가비 옮김 |
124쪽 | 13,000원



**프레시타,
난민을 위한 노래**
소수민족의 희망이 된
소녀 이야기

프레시타 토리 잔 지음 |
권가비 옮김 | 128쪽 |
13,000원



**살바도르,
기후위기에 대한 도전**
거대한 재난 속
빛을 든 소년 이야기

살바도르 고메즈 콜론 지음 |
권가비 옮김 | 112쪽 |
13,000원



**프란치,
인종차별을 넘어 행진**
흑인 인권을 드높인
소년 이야기

프란치 루진코트 지음 |
권가비 옮김 | 116쪽 |
13,000원

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도서출판 다른은 2004년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현재까지 290여 종의 도서를 출간했으며, 다수의 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시교육청, 세종도서 문학나눔 및 교양부문,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행복한아침독서, 어린이도서연구회, 학교도서관저널 등에서 우수도서 및 권장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든다”라는 믿음으로 생태, 평화, 인권, 나눔에 관한 책을 꾸준히 만들어 온 도서출판 다른은, 오늘도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 신간 정보와
활동지 자료를 받아 보고 싶다면?



도서출판 다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불의에 당당히 맞설 수 있을까? 무슬림 소녀가 경험한 9.11 테러 이후의 이야기

“9.11 테러 이후 나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FBI는 나를 소년원에 가렸고, 전자 발찌를 채웠어요.
내가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지요.
슬프고 비참했지만, 가만히 앉아 울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용기를 내서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맞서고 행동할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재난, 참사, 차별을 겪고 빅 트라우마를 경험한 십대가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힘들었던 과거를 오히려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방황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심민영

